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650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9년 1월 10일 (음력 12월 5일) 목요일

광주·전남지역 정가 '술렁'...21대 총선 점화

무소속 손금주 민주당 입당심사·'청와대행' 강기정 떠난 광주북갑 누가 접수

민주 '구여수' 여수갑·'구여천' 여수을·광양곡성구례 지역위원장 경쟁 치열

세해 벼두부터 전·현직 국회의원들의 거취와 맞물려 광주·전남지역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무소속 손금주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입당 절차를 밟고 있고 강기정 전 의원의 청와대 비서실장, 전남지역 민주당 지역위원장 선출 등 정치지형의 변화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을 향한 '총성없는 전쟁'이 시작됐다.

광주·전남지역 정가에 따르면 민주당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입당 신청서를 제출한 무소속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에 대한 심사를 벌였다.

안철수 전 대표가 영입한 손 의원은 지난 2016년 총선에서 국민의당 소속으로 당선된 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으로 당이 바뀌는 과정에서 1년 가까이 무소속으로 남아 있다.

손 의원은 입당은 내년 4월 총선의 포석으로 해당 지역인 나주와 화순 정가가 찬반

양론으로 술렁이고 있다. 민주당 웃으로 잡아 입더라도 나주·화순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는 신정훈 전 의원과 한관 승부가 가타리고 있다.

민주당 공천경쟁을 하든 입당이 불허돼 본선 경쟁을 하든 이 지역은 전·현직 의원 간 대결이다. 화순 출신 손 의원과 나주 출신 신 전 의원과 한관 대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강기정 전 의원이 청와대 정무수석 비서관으로 발탁되면서 광주 북갑 지역구 역시 주목을 받고 있다.

3선 국회의원으로 민주당 북갑 지역위원장을 맡은 강 전 의원이 내년 4월 총선출마가 예정됐지만, 청와대행으로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당장 지역위원장 자리를 내놓게 되면서 후임 위원장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강 전 의원의 정치적 행보가 상당히 중요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맞물려 지난해 탈당설이 있었던 광주 북갑 현역인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자신의 거취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김 의원은 현재 여러 가능성 등을 보고 관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손 의원보다 훨씬 변수가 많을 수 있다. 민주당은 물론, 평화당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실정이다.

강 전 의원의 결단여부에 따라 지역구 판세가 요동칠수도 있다.

김 의원은 "상황을 봐야한다. 심사숙고하고 있다"며 말을 아꼈다.

'협로'가 분명하지만, 김 의원은 민주당 입당과 함께 지역위원장을 껴잡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함께 민주당 전남지역 3곳에 대한 지역위원장 경쟁도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1일까지 전남 여수시

갑, 여수시을, 광양·곡성·구례지역구 3곳의 지역위원장 후보 접수를 받는다.

구여수권인 여수갑 지역구는 김유화 전 시의원, 김점유 전 총선후보 이상우 여수시 의원, 주철현 전 여수시장, 한정우 지역위원장 직무대행, 한현석 기업인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구여천권인 여수을 지역구는 권세도 전 여수시장 후보, 김순빈 전 여수시의회 부의장, 박완규 민주당 부대변인, 정기명 변호사 등의 공천경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광양·구례 곡성 지역구는 김재휴 전 보성군부군수, 김종대 민주당 지역운영위원장, 서동용 변호사, 서종식변호사, 안준노 노동운동가 등이 후보 불명에 오르고 있다.

지역정가한 관계자는 "손금주 의원의 민주당 입당과 강기정 전 의원의 청와대행, 전남지역 지역위원장 경쟁이 시작되면서 내년 4월 총선이 사실상 시작됐다"면서 "총선 후보군이 지지도가 고공행진하고 있는 민주당 공천을 받기 위해 총성없는 전쟁이 접착된 셈이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은 민주평화당 9석, 바른미래당 4석, 민주당 3석, 무소속 2석이다.

신봉우 기자



물지각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소환 조사에 앞서 대법원에서 입장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장 재직 시절 범죄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자신의 재판을 맡을 기관을 앞세워 검찰을 압박하려는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양기 6년 동안 '재판장 대법원장'으로 군림하며 총체적으로 사법 신뢰를 무너뜨린 그가 또 다시 대법원을 둘러싸고 세우려 한다는 것이다.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은 9일 "검찰 출석 직전인 11일 오전 9시에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 전 대법원장이 소환 등 입장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본인이 최근까지 오래 근무했던 대법원에서 입장을 밝히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건물 내부에서 아니고 정문 안쪽(대법원 현관 진입)로 비해서 하면 좋겠다고 고려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대법관 6년, 대법원장 6년 동안 관용차를 타고 오르내리던 길이다. 전 정의당 서기호 의원 등 관련 인사들의 속내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자료사진=뉴시스



대법원을 또 더럽히겠다고...



내 친정이나...



피의자 주제에 친정타령은...

김정환 기자



'신안 천사대교·목포 해상케이블카' 전남 서남권 섬·해양관광지 부상

도, 목포·무안·신안과 관광협업체 구성

전남도는 오는 3월 신안 천사대교, 4월 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 등 섬·해양관광 인프라 확충에 따라 서남권을 섬·해양 관광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서남권 관광지원 개발사업은 현재 개통을 앞둔 신안 천사대교,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자은도 해양복합시설인 신안아일랜드, 안좌도 테마공원, 천사대교 명품경관조명

설치를 비롯해 홍보관 겸 특산물판매장인 1004타워, 칠산대교(무안 해제~영광) 건립 공사 등이 추진되고 있다.

새로운 관광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신안 팔금·암태 선착장에 푸드트럭 특화거리 조성, 신안 중부권 임시버스 환승장 설치, 암태 오도 폐항을 활용한 경관 카페 조성, 관광안내표지판 정비 등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한 관광 수용태세도 대폭 강화된다.

이런 가운데 서남권 관광활성화 공동 노

력을 위해 전남도와 목포·신안·무안이 함께 참여 서남권 관광협업체를 구성했다.

협업체는 갯벌, 해수욕장, 해양레저 등 섬·해양 특화자원과 연계한 도서만의 특색 있는 관광자원과 교육 문화자원 조사를 해양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고 무안국제공항을 활용한 항공 및 해양 연계 관광상품을 다양화하는 등 공동 마케팅을 적극 펼친다는 방침이다.

서남권의 매력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관

광상품으로 ▲암태도~천사대교~목포해상케이블카-고하도 경유상품(섬&섬여행) ▲목포 해상케이블카와 신안 세일요트 체험상품(SKY&SEA투어) ▲2019년 말 개통 예정인 무안 해제~영광 간 칠산대교 해안일주 관광상품과 어촌체험마을, 갯벌·염전체험, 해산물 맛집 투어 등 특색 있는 체험상품을 개발해 올 상반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전남의 광역순환버스인 남도한바퀴는 고속철과 연계한 섬·해양 코스를 늘리고 봄 여행주간인 4월 27일부터 5월 12일까지 섬·해양 코스를 특화해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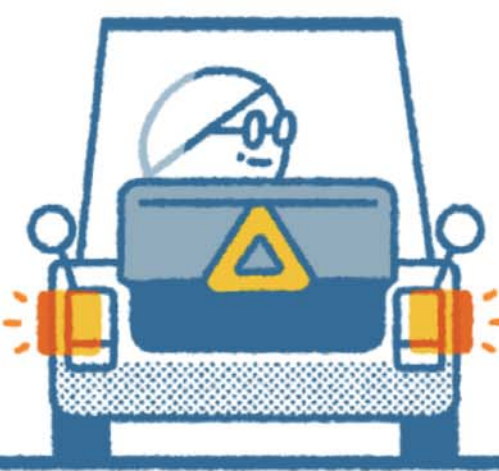
서남권 관광이슈를 반영한 권역별 실시간 공동상품 개발과 여행사 파트너, 여행상품 온라인 판매, UCC 관광영상 공모전 등 변화하는 트렌드에 맞춰 온·오프라인 마케팅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김명원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신안 천사대교·목포 해상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특화된 여행상품과 이벤트로 전남 서남권을 전 국민이 찾는 섬·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육성할 계획"이라며 "올해가 전남 관광 활성화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도록 전략적 관광객 유치마케팅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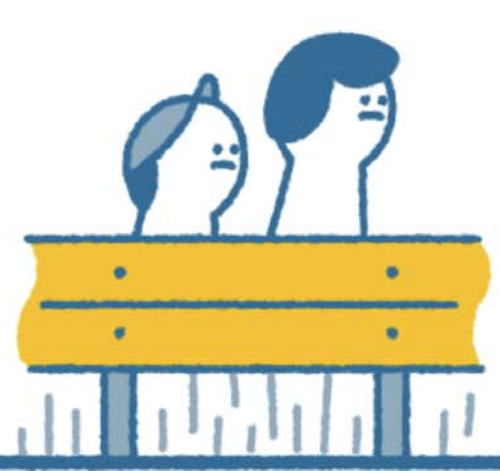
김정환 기자

사람의 스마트 고속도로

고속도로에서 사고나 고장이 나면



1 비상등 켜고 트렁크 열고



2 가드레일 밖 우선대피



3 사고신고 1588-2504

사람이 우선입니다

ex 한국도로공사